



## 고급화 제품 설정, 지기모양에도 초점

제7회 한국 팩스타 대학생 패키지디자인 공모전 (사)한국포장협회장상 수상

임희진 /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매년 개최되는 팩스타 (PACKSTAR) 전시회는 포장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포장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독창적인 우수포장디자인 개발로 판매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일선 디자이너들의 저변 확대 및 자긍심 고취, 산학협동의 취지로 전공학생들의 등용문 역할을 목적으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와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패키지디자인 관련 대표적 시상제도이다.

금년 PACKSTAR 2000 대학생 공모전은 217점이 출품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이 많아 한국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번 PACKSTAR 2000에서 (사)한국포장협회장상을 수상한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임희진 양은 수상소감으로 “졸업작품으로 준비한 작품을 출품했는데, 뜻하지 않은 수상이라 당황되지만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임희진 양의 작품 'GODIVA'는 고급 초콜릿을 컨셉으로 설정하여 고전적이고 고풍스러운 효과를 내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기(紙器)에서 러시아 민속인형처럼 상자 내부에 상자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이 독특한 점이다.

제작과정에서 고급스러움을 내기 위해 주색상을 금색과, 적색, 흑색으로 설정하고, 고전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서양의 중세 문장(門帳)과도 같은 모양을 디자인했다.

임희진 양은 “컨셉설정에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는데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자칫 어설픈 고급스러움은 진부함과 직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라며 초기 아이디어 설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자의 모양을 다양하게 하고 인쇄적성을 높이면 컨셉에 맞는 작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패턴을 사용해 무늬를 디자인하고 인쇄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기 위에 코팅하는 방식인 칼라 이즈(Color

Ease) 기법을 사용해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인쇄적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칼라 이즈(Color Ease)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PACKSTAR 2000 출품작들의 패키지디자인 경향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눈에 띄기 쉬운 디자인을 채택한 경향이 많았는데 임희진 양의 'GODIVA'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것이 여타의 출품작과는 다른 점이었다.

다른 작품과 다르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임희진 양은 학생답지 않은 감각과 열정으로 초기에 설정한 컨셉을 잘 소화해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임희진 양은 패키지디자인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패키지디자인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다. 패키지디자인은 상품의 얼굴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실력에 대해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한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실내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임희진 양은 진로도 이 분야로 설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위에서 도와준 분들에게 가장 큰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제작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도와준 김지철 교수에게 진심으로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하고 아이디어 설정과 어려운 고비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남자친구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언제나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임희진 양은 이번 수상을 하기까지 8개월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패키지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이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기업도 패키지디자인이 상품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키지디자인 분야로 입문하려는 새로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PACKSTAR 2000 (사)한국포장협회장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임희진 양이 앞으로 패키지디자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원한다. ☐

박기진 기자